| 현불 논단 |

전륜성왕을 기다리며…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4월 총선 앞두고 정치판 요동
이합집산 속 창당에 '우후죽순'
한기총 회장 주도 정당도 나와

韓불교엔 '전륜성왕의 꿈' 절실
'민주적 정의공동체' 구현 의미

부처님께서 전륜성왕이 됐다면
중도+정의 '中正정치' 펼쳤을 것
불교적 정치 구현에 고민 필요해

'코로나19' 로 불리는 괴질이 창궐하고 있는 이 땅에 정치의 광풍이 휩쓸고 있다. 4월 총선에 대비하여 한국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합집산의 혼돈 속에서 이런저런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어느 목사가 '자유통일당' 이라는 정당을 주도적으로 창당하였다. 이를 어쩌랴. 그 창당 행사장은 마치 선교 부흥회를 방불케 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정치와 종교는 어떤 관계일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종교와 정치의 밀접한 관계는 긴 역사 속에서 생생한 발자취를 찾을 수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정교분리' 는 내숭일 뿐이다. 불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고가 있다면 불교를 '깨달음' 의 종교로만 본 오해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정치적 여정은 아픔과 부끄러움의 역사였다. 조선시대와 일제의 긴 질곡에서 빠져 나온 한국불교는 1945년 해방공간에서부터 또 다른 늪 속에 빠졌고 전두환 군부정권에 의해 10.27법난이라는 치욕도 겪었다.

오늘날 한국불교에는 전륜성왕의 꿈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전륜성왕은 하나의 설화였지 꿈이 아니었다. 꿈은 바람이고 바람은 실천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불교에서 고대 인도에서 태동된 전륜성왕의 관념과 사상을 비중 있게 수용한 것은 바로 불교가 현세 지향적, 실천 지향적 성격이 강한 종교라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리라. 전륜성왕의 꿈은 '민주적 정의 공동체' 의 구현에 있고 그 길은 바로 하화중생의 길이다.

붓다도 전륜성왕의 꿈을 꾼 적이 있다. 잡아함의 〈작왕경〉의 내용을 소개한다.

"내가 왕이 되어 남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빼앗김을 당하는 일도 없고, 남을 슬프게 할 일도 없고 스스로 슬플 일도 없도록 한결같이 법대로 행하고 법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는 통치를 하면 어떨까?"

붓다가 이런 생각을 하자 악마가 기뻐하며 유혹하였지만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우기 어렵다"며 그 유혹을 뿌리쳤다. 이 경전의 내용은 민주적인 정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붓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더 근원적인 처방을 찾으신 것이리라.

그러나 붓다의 민주적인 정의 공동체에 관한 관심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칠불쇠법(七不衰法)' 이다. 또한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왕과 국가가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여러 왕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그러나 붓다는 정치권력의 타락과 통치자의 위험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국가와 통치자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붓다가 꿈꾼 전륜성왕의 권위와 존엄은 민주적인 정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정법정치에서 나온다 하겠다.

이제 한국불교가 이 땅에 전륜성왕이 출현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는데 원력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사부대중과 종단이 먼저 민주적인 정의 공동체를 실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나침판을 세우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먼저 꾸준한 제도 개혁과 종단의 민주화 역량 강화,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율적 실천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붓다가 전륜성왕이 되었다면 지금 세상은 어떨까? 중도와 정의가 결합된 '중정(中正)정치' 가 펼쳐졌을 것이다. 중정 정치의 꿈이 바로 불교정치철학의 핵심일 것이다. 이제 한국 불교가 한국 정치 발전과 성숙한 정치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에 대해 진지한 고뇌를 할 때이다.

社 說

불교계 '코로나19' 대응 환영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20일 현재 104명으로 늘어났고 처음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첫 사망자도 발생했다. 국내 확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것은 대구 ·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만 43명에 달한다. 특히 '슈퍼전파' 와 관련된 31번 환자가 서울 강남구와 경북 청도군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한 교단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종교단체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조계종 총무원은 2월 20일 전국 소속 사찰에 긴급 대책과 지침을 공지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 경북 사찰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향후 2주간 모든 법회 및 성지순례 · 교육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을 자제할 것을 시달했으며, 대구 · 경북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을 중단시켰다.

조계종이 공지한 긴급 조치에도 마스크 착용부터 중국에 다녀온 스님과 직원들 2주간 한시적 업무 배제, 격리 등을 명시해 감염 예방 선제 조치에 들어갔다.

지역 사찰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잠정 휴관에 들어가고 입학식도 취소했다. 신도교육은 미디어 시청과 SNS를 통해 이뤄진다. 통도사는 2월 19~21일 경내 전체를 방역 조치했으며,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감염 예방 조치와 대응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강력한 예방만이 지금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2주간이 중요한 만큼 이 기간동안 법회와 행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 같은 제언에 귀 기울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불교계도 동참하길 바란다.

배려가 쌓은 사관생도 佛心

해군사관학교 호국사가 올해에도 4대 종교 중 가장 많은 생도 졸업생을 배출했다. 호국사는 올해 130여 명의 사관생도 중 55명을 불자로 키워내 6년째 굳건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호국사는 前범어사 주지 능가 스님과 해군사관학교 김규섭 교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 1972년 건립됐다. 이후 40여 년간 포교도량의 명맥을 이어오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2016년 신축을 결정해 2018년 낙성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5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법당을 갖춘 호국사는 불자생도들의 심신을 어루만지는 안심도량으로 거듭났다.

호국사의 성공비결은 바로 생도들을 위한 '배려' 에 있다. 젊은이들에게 자칫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종교색을 강요하지 않고, 법문도 10분가량으로 최대한 줄였다. 또 경전이나 법문에 국한하지 않고 PPT나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불교의 이해를 높였다. 그 시기에 생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은 기본이었다.

생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려하는 문화는 현 주지법사인 만소 스님 이전부터 만들어졌다. 그렇게 군법사스님들은 생도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 고단한 행군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생도들은 자연스레 법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한국불교는 오래전부터 청년불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포교방법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어느 포교방법이든 눈높이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색적인 포교보다는 대기설법이라는 배려로 수많은 제자들을 진리로 이끌었다. 포교의 기본을 다시 생각할 때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고통을 주시하라

작가들의 묘비명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특히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을 보면 씩씩한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나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다."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상이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그의 책 〈영혼의 자서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노란 번갯불의 섬광이 소리 없이 하늘을 가르고, 지축을 흔드는 천둥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얼마 후 일 년 내내 먹을 건포도가 빗물에 실려 떠내려갔습니다. 마을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려주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문간에 서서 양식이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린 니코스는 아버지에게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죠.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그림 · 최주현

니코스는 문간에 꼼짝 않고 서서 재난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라는 아버지 말씀은 위대한 교훈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니코스의 아버지는 문간에 서서 '어떤 재난이 와도 굴하지 않겠다' 는 마음을 다졌을 것입니다. 하늘이 우릴 버릴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늘을 향해 독기어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과 재난도 우리를 없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의 종류는 경제적인 손실, 배반, 이별, 죽음, 사업실패, 실직, 실연 등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나 고통은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의 얼굴을 보지 않고 도망치려는 것은 자신의 삶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에게 등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하면서 고통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통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전형일정 : 2020년 2월 10일 (월) ~ 2월 27일 (목)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 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마일운 스님	월	30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김태호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배]	각배과정	조인각 스님	목	
4학년 [영산]	영산과정	이기봉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